【1】 西紀1969年12月1日 (木曜日) 1960年7月1日·登錄番號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55年10月13日第3種郵便物認可 1954年6月20日創刊 第440號

東大新聞

發行人 金 炯 鎬
編輯人 金 相 旭
主 幹 吳 世 聰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23)3130~9
本社直通 (23)8498

每週日曜日發行

今週一言

현재는 마음의 결과이다. 그것은 마음에 기초를 두고,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法句經에서)

學期末試驗시작

放學中 활동 계획多彩

학술연구회

도 1 신년 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全北정읍의 2개지구에서 학술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장학생회와 후진사회문제 연구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학술연구회는 회원 30여명이 3파트로 나누어 농촌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예정인데、조사분야와 연구출발은 출발에앞서 임원회의에서 상세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연부

계몽사를 제13회 동일부터 1월 27 등 6일까지 10일간에걸쳐 경북 청주군수원면백운동、경기도 부천군소야리와 충남 지구를 선정、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앞서 20일부터 7일간은 농연부 회의실에서 체육교육을 실시하며 고등이 끝나는 26일오전 발대식을 갖고 2개 취약지구로 떠날 예정이다。

봉사계획의 내용은 아동교육、청소년지도、부녀지도、노력봉사、등이며 인솔교수는 이병등、김육진교수이다。

학생회

제7회 졸업공연인 「로미오·앤·줄리」작 「햄릿속의 乾燥淵」가 1학년 4월부터 7년이에 본교 중강당에서 전관중에 공연된다。한편 11일과 12일에 「드라마센터」에서 2차공연을 가지게된다。

수보리

부처님의 말씀은 빛이 보는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요、이 세계 道를 탄생시킨날이요、이 地上에 불교를 있게한 최초의 날이다。

十二월八일(음) 은 成道日이다。부처님의 成道에 의하여 불교는、한 점은 그 가르침인불교는、한 점은 求道者가 긴 修行의 여로에서 지친몸을 나려 선하 맑은물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옷을 갈아입고 정좌하여 명상에 잠기는 것이다。

어떤지곡、보리수 밑 반석위에 軟滑草를 두둑히 깔고앉아 成道한 것으로부터 였던 것이다。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인생의 진리를 제에 遊戲할수 있게 하는 못한다。부처님의 위대한 成道가 뜻하는 참 意義를 이루었다하여 부처님 자신만 成道를 完成하는 것은 成道라 할 것이다。

成 道

불교대학 宗費生과 종업생을로 구성된 釋林 제3집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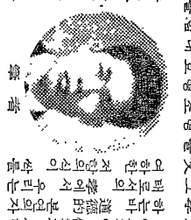
徐京保 元의범 徐景洙교수등의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徐景洙교수등의 논문은 수필 소설등이 많이실려있어 釋林 1·2집에비해 비판했던 인도 논리를 보다 비판적인 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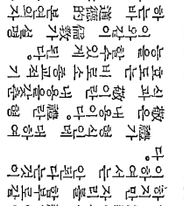
論集部에서 최초로 발간한 【譯經院】 한불대장경 발간사업에 따라 論集部 경전인 「나야야빈두」와 南傳部 장경으로서 역시 처음 번역발간된 「달린다다따문經」은 佛教認識論理學으로서 당시 인도의 논리학의 대표적인 논리서이다。

論集部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불교계뿐 아니라 말레지아에서 18년동안 체류 중가、20세때 득도한 제1회 캠퍼스촬영대회 참여、6대전에 현재의 제9대僧正이신 「나야야빈두」에 올랐다。또한 현재의 「말레지아」 불교계를 좌우하는 스님들 등 10명의 저서로는 불교의 논리학、인도철학、인도종교사、불교사、불교개론、불교교리、불교윤리、불교미술、불교음악、불교문학、불교심리학、불교사상、불교와 과학、불교와 현대사회、불교와 인생、불교와 현대생활、불교와 현대문화、불교와 현대정치、불교와 현대경제、불교와 현대교육、불교와 현대과학、불교와 현대예술、불교와 현대철학、불교와 현대종교、불교와 현대윤리、불교와 현대사상、불교와 현대문학、불교와 현대심리、불교와 현대사회

絶對的、盲目的順從要求

自意識 버리고 仁의 典型的·本質的 原理





特集「問題書 中心으로」

綠永 書評

60年代의 回顧와 未來의 나갈길

社說

思考의 힘

大學街에 異色話題波及

英文學·英語學分野 연구에 成果커

大學教壇·文壇에 활발히 進出

實驗의 傳統

書評

佛教講院의 教授 三三三 内容충실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三三三 李智冠 著

졸기관 前進-東大64년

佛敎와 抗日의 旗幟들고

□明進學校에서 中央學林까지

일본총독부의 統監府의 토지조사사업추진을 비롯으로 아직까지 전국대적토지소유당시부터 모르면 寺院재산에 손을 뻗치어 일본사원을 여러곳에 세워놓고부터 敎國抗日의 일념으로 불교운동을 전개하여오던 洪月初·李鎭濠·李晦光등은 당국에 사찰재산보호를 요소하는한편 포교의 振興을위해서 불교연구회를 조직했다。

그들은 먼저 新학문을 계통적으로 가르쳐야할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그들은 京鄕의 各寺대표와함께 의논하여 1906년2월 당국으로부터 19일에는 明進學校의 설립인가를 얻었다。 그달25일에는 각도 사찰에 학생모집의 通文을 보냈는데、 그응모자격은 각사원의 講師에서 大敎科과정을 마친 30세미만의 승려로 했다。 그리하여 元興寺를 그교사로 하고 각道사찰 대표회에서 선출된 李寶潭이 교장으로 취임하여 5월8일에 개교식을 거행했다。

明進學校의 개교는 비단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京鄕各寺에서 뽑힌 학생들을 上海임시정부에 대표로 보내려 전국사찰에서 각출케 하였으며、 여기서 新학문을 계통적으로 가르쳐야할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그들은 京鄕의

여기 眞理의 등불이

東國大學校의 오늘

◇……↖속 배울 람으로서 그使命을 다하고 있다。지금 이시간에도 진……◇
◇……리탐구에 전력을 다하는 5천 東國전아의 보금자리 東岳의……◇
◇……맥박은 힘차게 고등치며 雄志를 키우기에 여념이없다。……◇
◇……知性의 전당「東國」의 편모를。도약과 雄飛의 자세……◇
◇……를 살살히 더듬어 본다。……◇
◇……◇

文理科大學

傳統있는 文學部에 理學部까지

東國大學校하면「文理科大學」을 연상하리 만큼 大學의 에센스인 심오한 학문적 역사와 전통을 결비한 대학이다。특히 文理科대학「文學部」는 東洋學과 國學의 발상지로서 소속학과들은 20년이상의 전통을 자랑하고있다。

커리큘럼자체가 우리 國學을 중심으로한 西洋學은 물론 과학이론의 섭취、개척을 중점적으로 하고있는 점등 그내용도 타대학에 비해 월등 우수하다。

文理科대학은 大別하여〈文學部〉와〈理學部〉로 나뉘인다。

文學部에는 ①國語國文學科 ②英語英文學科 ③史學科 ④연극영화학과 ⑤수학과 ⑥물리학과 ⑦화학과 ⑧통계학과등이 있다。

국어국문학과 운데서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학과로서 가장많은 人材를 배출하였다。

교수진은 국내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데 현재 梁柱東、徐延洪、趙潤濟교수등 8명의 교수가있다。평소「東國文學會」등 학생활동이 활발한 국문학과의 학풍은 특색은 국문학을 중심으로한 古典문학과 현대문학의 조류파악을 기초로하여 學的연구와 창작 활동에 주력하고있다。이學科의 졸업생들은 學界와 社會、敎職、言論、文化界의 진출이 활발하고 졸업생중 大學교수로 활약하는분도 40여명이나 된다。

영어영문학과 항상 학과이다。인기있는 절차적으로 고도의 수준을 요하는 말할나위 없이 外來부대에 많은 人材를 배출하고있다。

英語學과 英美문학사조를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英國文學을 연구、영화理論의 체계화와 연출、「실기중심으로 定評있는학과다。」

史學科 學因을 인류생활의 문화적 諸현상으로 구성되어있다。公安行政、민주질서확립에 기수를 양성하는 곳이다。

警察行政學科 나뿐인학과。실무경찰관의 재교육에 중점을 둔다。

貿易學科 68년부터 貿易士자격시험조류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하고있다。

政治外交學科 물고나갈 人材배출의 産室로 정치외교의 권위자인 신이정강한 학과이다。公安行政학계、민주질서확립에 많은 민주사회의 기수를 양성하는 곳이다。

經濟學科 국내에서단하나뿐인학과。실무경험을 통해서 실천을 단련하고 실기를 통해서 실천을 습득시키고 고위간부 경찰의 자질을 갖추고 나가는 졸업생들은 중견이상의 경찰간부로 졸업과 동시에 채용되고있다。

이밖에도 실제 국가간에 나가 일하는 외교관을 양성 배출하고있는 경찰전문학과와 자매관계를 맺고 학문적인 편을 상호협조하여 연구를 하고있다。

본교 법정대학은 광범위한 법이론을 연구하며 사회 추세에 알맞는 실제적인 실기를 겸해서 사회생활에 알맞는 새교육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있다。

전문가적인 자질을 배양하고 이상적인 분야로 진출해 나가야 하는 법정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사회학과 현대 민주화 추세에 따라 행정이 점점 복잡다단해진 오늘、사회학과는 행정학의 기본 원리를 체득한 기사를 필요로 하고있다。현저한 진보를 하고있다。

정치학과 현재 梁柱東、徐延洪、趙潤濟교수등 8명의 교수가있다。평소「東國文學會」등 학생활동이 활발한 국문학과의 학풍은 특색은 국문학을 중심으로한 古典문학과 현대문학의 조류파악을 기초로하여 學的연구와 창작 활동에 주력하고있다。이學科의 졸업생들은 學界와 社會、敎職、言論、文化界의 진출이 활발하고 졸업생중 大學교수로 활약하는분도 40여명이나 된다。

영어영문학과 항상 학과이다。인기있는 절차적으로 고도의 수준을 요하는 말할나위 없이 外來부대에 많은 人材를 배출하고있다。

英語學과 英美문학사조를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英國文學會

史學科 學因을 인류생활의 문화적 諸현상으로 구성되어있다。公安行政、민주질서확립에 기수를 양성하는 곳이다。

警察行政學科 나뿐인학과。실무경찰관의 재교육에 중점을 둔다。

貿易學科 68년부터 貿易士자격시험조류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하고있다。

政治外交學科 물고나갈 人材배출의 産室로 정치외교의 권위자인 신이정강한 학과이다。公安行政、민주질서확립에 기수를 양성하는 곳이다。

經濟學科 국내에서단하나뿐인학과。실무경험을 통해서 실천을 단련하고 실기를 통해서 실천을 습득시키고 고위간부 경찰의 자질을 갖추고 나가는 졸업생들은 중견이상의 경찰간부로 졸업과 동시에 채용되고있다。

이밖에도 실제 국가간에 나가 일하는 외교관을 양성 배출하고있는 경찰전문학과와 자매관계를 맺고 학문적인 편을 상호협조하여 연구를 하고있다。

본교 법정대학은 광범위한 법이론을 연구하며 사회 추세에 알맞는 실제적인 실기를 겸해서 사회생활에 알맞는 새교육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있다。

전문가적인 자질을 배양하고 이상적인 분야로 진출해 나가야 하는 법정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가장 純粹한 性格지녀 수많은 英才배출

◇ 大學의 像徵「석조관」

光범한 法政연구

民主社會의 旗手양성

法政大學

◇政治 法曹界에 진출활발

佛敎大學

□ 각종 奬學金이 추어지는 3個科

進出門戶 넓어

國內유일의 佛敎大學

본교는 佛敎敎育의 요람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널리 그 전통과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그것은 국내 유일한 종합불교대학으로서 불교대학을 자부하는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불교이념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고있기 때문이다。

개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던 1906년 불교정신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개교한 佛敎大學은 現國의 모체로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왔다。

그후 1910년 불교대학으로 불교계의 유일한 전문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28년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개교이래 불교정신과 학문을 포함한 동양및 한국의 사상과 철학 전반에 걸쳐 연구하고 교육하는 한편 현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형성 全人的인격의 배양에 노력함은 물론 학문의 질적향상을 보다 더욱 드높이기 위해 최근 국내각대학과 서구사회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16명、태국에 6명、미국에 7명등 불교대학의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연구에 힘쓰고있다。

현재 본교와 姉妹결연을 맺고있는「아이오아 大學」에 매년 2、3명의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ROTC의 특전을 받을수 있음은 물론、〈佛敎學科〉〈佛敎學科〉등 특수학과를 설치、불교사상과 불교문화의 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불교학계와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있다。

▲佛敎文化연구소=불교문화의 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불교학계와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있다。

▲六學禪院=참선을 통한 정신의 순화와 신앙의 생활화를 위하여 설립。

맥주 트요일마다 法會를 열고 있다。

經商大學

□人氣있는 3개學科에 硏究所도

조성비를 지급받아 연구하고있는 海外開發연구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업실습실인 英文打字室의 설치도 아울러 50여대의 타자기를 마련、경상학과 뿐만 아니라 실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0명의 습득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그 使命을 다하고있다。

경상대학은 1963년 6월로 6년밖에 안된다。그러나 經商大學은 이미 22년전인 1947년이래의 역사가 깊고 學問으로서의 전통이 있는 경상계학과로서 經濟學科、商學科와 經營學科、新聞學科 및 經商大學院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같은해 2부대학이 신설됨과 동시에 경제학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되었다。

당시 경상계학과로선 經濟學科가 政經學部 商科 타대학의 추종을 불허하기까지도 하였다。

그후 59년 1월에 商學科와 經營學科가 신설되었고、63년 6월에 經商大學이 개설됨과 동시에 종래의 經濟學科、商學科 및 經營學科가 統合되어 오늘의 경상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경상대학의 역사가 오랜 學科인만큼 교과내용도 충실할 뿐만아니라 學生들의 과외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經濟學會에서 발간되는「東國經濟」는 學界에서 까지 주목이 된 論文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역사와 전통있는 학과로서 성장해온 만큼 많은 인재를 배출、현재는 대부분 중견간부로 또는、금융계의 요직에 진출되는 인재로 대다수가 진출되어 있다。

經濟學科 1947년에 설치된이후 대하여 전문적연구와 그실용방법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경상대학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랜 學科인만큼 교과내용도충실할 뿐만아니라 學生들의 과외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經濟學會에서 발간되는「東國經濟」는 學界에서 까지 주목이 된 論文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역사와 전통있는 학과로서 성장해온 만큼 많은 인재를 배출、현재는 대부분 중견간부로 또는、금융계의 요직에 진출되는 인재로 대다수가 진출되어 있다。

貿易學科 를 68년부터 貿易士자격시험조류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하고있다。

政治外交學科 물고나갈 人材배출의 産室로 정치외교의 권위자인 신이정강한 학과이다。公安行政、민주질서확립에 기수를 양성하는 곳이다。

警察行政學科 나뿐인학과。실무경찰관의 재교육에 중점을 둔다。

경찰대학생의 연구는 물론 직접 훈련을 통해서 실천을 단련하고 실기를 통해서 실천을 습득시키고 고위간부 경찰의 자질을 갖추고 나가는 졸업생들은 중견이상의 경찰간부로 졸업과 동시에 채용되고있다。

이밖에도 실제 국가간에 나가 일하는 외교관을 양성 배출하고있는 경찰전문학과와 자매관계를 맺고 학문적인 편을 상호협조하여 연구를 하고있다。

본교 법정대학은 광범위한 법이론을 연구하며 사회 추세에 알맞는 실제적인 실기를 겸해서 사회생활에 알맞는 새교육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있다。

전문가적인 자질을 배양하고 이상적인 분야로 진출해 나가야 하는 법정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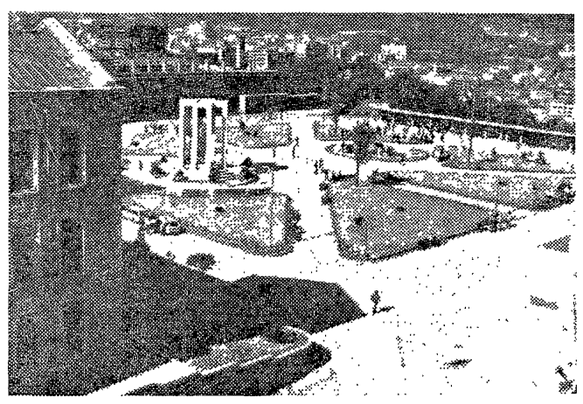
經商大學

優秀한 經濟界人材키워

會計·貿易士 대량 배출

進出門戶 넓어

國內유일의 佛敎大學



◇캠퍼스 전경

佛敎學科、印度哲學科、哲學科등 3개학과로 구성되어있는 佛敎大學의 각학과별 학문적 특색과 연구방향 그리고 佛敎大의 부설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佛敎學科 현재 일본사상과 한국사상에 있어서의 불교사상과 불교문화의 연구와 함께 불교사상의 민족사상을 깊이 탐구하여 정신적 문화창달자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한다。

印度哲學科 현재 국내 유일의 그학과로서 특색이 있다。

세계적인 문화발상지의 하나인 印度의 철학을 연구하여 현대의 문화및 사상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3년에 신설되었다。

印度철학과는불교의 발상지인 印度의 사상과 그역사성 및 사회성등을 연구함으로서 불교의 진수를 체득케 한다。

불교학과와 마찬가지로 卒業후 宗僧의 혜택이 주어지고있다。

印度철학과는 불교사상의 근본을 보다 깊히 연구하여 불교사원의 인격을 도야하는데 교육목적을 두고있다。

哲學科 초등 철학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및 철학전반에 걸친 연구를 한다。

특 보장되고있다。

각종 20여개교의 불교 宗立학교내에서는 이들을 우선채용하여 敎師로서 종교과목을 담당케 하고있다。

印度哲學科 학과로서 문적인 특색이 대번길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발상지의 하나인 印度의 철학을 연구하여 현대의 문화및 사상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3년에 신설되었다。

印度철학과는불교의 발상지인 印度의 사상과 그역사성 및 사회성등을 연구함으로서 불교의 진수를 체득케 한다。

불교학과와 마찬가지로 卒業후 宗僧의 혜택이 주어지고있다。

印度철학과는 불교사상의 근본을 보다 깊히 연구하여 불교사원의 인격을 도야하는데 교육목적을 두고있다。

哲學科 초등 철학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및 철학전반에 걸친 연구를 한다。

모든 학문적 기초를 확립하고있는 현대인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의식을 심어줄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것이 학과의 목표。특히 동양철학의 근거가 되는 불교철학에 직접 접할 기회를 갖는 점은 타대학에서는 찾아볼수없는 특색이다。

附設機關 소=불교문화의 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불교학계와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있다。

▲佛敎文化연구소=불교문화의 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불교학계와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있다。

▲六學禪院=참선을 통한 정신의 순화와 신앙의 생활화를 위하여 설립。

매주 트요일마다 法會를 열고 있다。

經學制度

▲新入生장학금 ▲政府貸與 장학금
▲優等 장학금 ▲三寶 장학금
▲校貴 장학금 ▲韓一 장학금
▲佛敎宗團 장학금 ▲三星 장학금
▲佛敎 장학금 ▲3·1 장학금
▲東國 장학금 ▲5·16 장학금
▲東大新聞 장학금 ▲東醒 장학금
▲化學科 장학금 ▲大學봉사회 장학금
△同窓會장학금 ▲학남 장학금
△經商 장학금 ▲觀音를럽 장학금
△經商大동문장학금
△特技장학금 △東女會 장학금

부실광고

本籍 京畿道仁川市花水洞5
住所 京畿道仁川市景霞洞72
姓名 池容福(佛敎科3年)
學生證을 분실。11月22日 仁川에서

本籍 忠南大田市正炫洞246
住所 서울永登浦區上道2洞323의4
姓名 宋鎭虎(法科2年)
學生證을 분실。11月19日 校內에서

本籍 京畿도 仁川郡 桂陽面 桂陽里 1129
住所 서울市永登浦區加里洞88의36號
姓名 金善乙(物理科3年)
學生證을 분실。11月27日 校庭에서

本籍 忠北中原郡 新安面 毛南里 1129
住所 서울市永登浦區加里洞88의36號
姓名 李德元(史學科2年)
學生證을 분실。11月21日 市內에서

本籍 忠北 報恩郡 內俗離 面 西里
住所 서울市城東區馬場洞5
姓名 李鎭熙(商學科2年)
學生證을 분실。11月29日 교내에서

本籍 忠南 舒川郡 馬西面 南田里 282番地
住所 서울城北區 貞陵洞 1洞 119의26
姓名 羅武烈(英文科3年)
學生證을 분실。11月10日 校庭에서

本籍 忠北 清州市 祭洞 9
住所 서울市城東區 道谷洞 6
姓名 閔泰允(行政科4年)
學生證을 분실。11月23日 麻浦에서

本籍 京畿 仁川郡 桂陽面 陶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道 楊州郡 道峴面 谷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道仁川市花水洞5
住所 京畿道仁川市景霞洞72
姓名 池容福(佛敎科3年)
學生證을 분실。11月22日 仁川에서

本籍 忠南大田市正炫洞246
住所 서울永登浦區上道2洞323의4
姓名 宋鎭虎(法科2年)
學生證을 분실。11月19日 校內에서

本籍 京畿도 仁川郡 桂陽面 陶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道 楊州郡 道峴面 谷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忠北 清州市 祭洞 9
住所 서울市城東區 道谷洞 6
姓名 閔泰允(行政科4年)
學生證을 분실。11月23日 麻浦에서

本籍 忠北 報恩郡 內俗離 面 西里
住所 서울市城東區 馬場洞 5
姓名 李鎭熙(商學科2年)
學生證을 분실。11月29日 교내에서

本籍 忠北中原郡 新安面 毛南里 1129
住所 서울市永登浦區加里洞88의36號
姓名 金善乙(物理科3年)
學生證을 분실。11月27日 校庭에서

本籍 忠南大田市正炫洞246
住所 서울永登浦區上道2洞323의4
姓名 宋鎭虎(法科2年)
學生證을 분실。11月19日 校內에서

本籍 京畿도 仁川郡 桂陽面 陶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道 楊州郡 道峴面 谷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도 仁川郡 桂陽面 陶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道仁川市花水洞5
住所 京畿道仁川市景霞洞72
姓名 池容福(佛敎科3年)
學生證을 분실。11月22日 仁川에서

本籍 忠南大田市正炫洞246
住所 서울永登浦區上道2洞323의4
姓名 宋鎭虎(法科2年)
學生證을 분실。11月19日 校內에서

本籍 京畿도 仁川郡 桂陽面 陶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道 楊州郡 道峴面 谷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本籍 京畿도 仁川郡 桂陽面 陶里 77의2號
住所 右 同
姓名 朴相烈(商科3年)
學生證을 분실。12月23日 북악산에서

日語

會話速成班
文章硏修班
初步부터
原書까지
特別指導
"오부한 圓卓講義"
連絡處
전화 ㉓〇六九二
李 聖 宰
鍾路區苑西洞 一二二

엘범撮影

엘범위원회에서는 지난 엘범촬영기간에 엘범사진을 촬영 못한 졸업반 학생을 위하여 左記와 같이 최종촬영기간을 설정하였으니 전원 빠짐없이 촬영해주기 바랍니다

記

一、期間 十二月十日
—十五日(六日間)
一、場所 寫眞예술원
(종로2가파고다공원옆)
一、種類 개인 인물사진
科別 그룹사진
(10명씩)

一九六九年十二月十日
엘범위원장 鄭政樹

제1회「캠퍼스」촬영대회 작품전

지난번 東大新聞社와 東大사진클럽이 공동주최한「캠퍼스」촬영대회 작품전이 교내「白鷗의 집」집에서 전시되고 있읍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때 : 12월 8일~18일
곳 : 백상의 집

東大新聞社
東大사진클럽회원일동

高亨坤著
禪의存在論的究明
東大構內書店에서販賣中
哲學硏究會刊 값五〇〇원

登山家·旅行家를위한 Guide
名山古刹을 찾아

李載昌敎授著 값280원 200面
36版 264P 洋裝製本

名山에는 해묵은 古刹이 있고 古刹에는 歷史의 때가 묻혀있읍니다
이끼서린 탑을 찾는 하이카와 全國名山古刹을 探訪하는 旅行家들을 위해 이冊은 親切한 案內者가 될뿐아니라 알찬 보람을 줄것입니다
盲目的인 旅行 하이킹을 벗어나서 著者가 親히 踏査하고 學究的 考察을 加하여 지어낸 文敎院刊
名山古刹을 찾아를！

현상모집

금번 法政大學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논총" 제2호의 발간의 즈음하여 교수제위와 학생 여러분의 현상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단 법정대교수및 대학생에 한함)

제출일시 196912·20~방학중
~1970·2·25까지
문의처 총학생회의실 또는
(52) 8237

法政大學 學生會長 박해룡

원고모집

오랜전통을 가지고 있는 본교 농림대학에서는 7집으로 충남했던「東國林」을 속간함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종목 = 연구논문(20매내외)
생활수기(15매내외)
시 꽁뜨
모집기간 = 6·9년11월25일
~12월20일
제출처 = 임학과연구실
(D214)

기타 자세한것은 농림대 회장에 직접 문의바람

농림대 학생회장

원고모집

생활속의 일상철학을 모색하고、정신적 성장을 기도하기 위한 본교 철학과 학생회에서는 긴방학동안을 보다 보람있게 꾸미기위해 철학도들의 옥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종목 논문(二〇〇자원고지 50枚내외)
모집대상 본교 철학과 재학생
제출기간 12월4일—31일까지
제출처 철학과 주임교수실

一九六九년 一二월四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철학과 학회장

우렁찬 새 歷史의 요람

개교 64년을 자랑하는

◇……佛敎의 심오한 敎理를 建學理念으로 1906년 創立된 본교는……◇
◇……民族思想을 鼓吹하고 最高의 知性을 가름하는 民主敎……◇
◇……育의 전당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오늘의……◇
◇……東國大學校는 8個大學 33個학과를 갖춘 명실공히국……◇
◇……내 유일의 불교종립 종합대학으로 현대 國家社會……◇
◇……에 널리 공헌할수 있는 有能한人 材를 속↘……◇

農林大學

◇敎授中엔 博士만 7명 이나

農林지도자 育成

도場農 에林習演 대최내國

農業의 企業化를 촉진한다。 농업경제의 침체를 지양하며 양성 발전시키고 농업연구개선으로 農家經濟를 새로히 조성하고자 林業태조산을 실시하여 이에기초를 공설하하도록 지도하고있다。

農業生物學科 울러한 生命現象에관 生命體 相互間의 有機 나아가 生命體 한 연구함을 目的으로 하고있다。

農學科 전문적인 農業生産性의 向上과 農業經營방법을 연구 敎授하고있다。 농업적인 農業經營방법을 연구 敎授하고있다。 농업적인 農業經營방법을 연구 敎授하고있다。 농업적인

불타는 나팔소리

□ 운 성 임 □

<國文科 2年>

프로필

○…이번 수상작은 『상상의 푸대를 설정하여 추진국의 현실을 강하게 풍자』했다는 林成雲군(國·2)의 『오로지 文學에 뜻을 두고 小說을 전공하는 자신만만한 패기와 투지의 문학도. 유일한 본교 「동국문학회」의 출두를 달고 있다.

○…1947년생. 全南광산군 4남매 중 장남이지만 지금은 바로학교 뒤켠에서 하숙생활.

○…대학생활 2년동안 느낀건 『사람들이 좀더 솔직했으면』하는 것. 원망할 분도 있으나 영향있는 교수님들과 「동문」과 「정직한 동료」들.

○…취미는 독서. 광주상고를 졸업, 그대선지 주로 글을 써왔다. 취미 역시 자기 실각해진다.

○…금년 뜻있는 본교 국문과 2학년 同人誌 「原點」에 대한 애착도 대단하다.

○…좋아하는 성격 「現實과 理想의 다이나믹한 성격」의 소유자. 주제로 한 작품을 쓰고 있는 한것은물론이었는 편이지만 『피곤한 줄모르고 자신만만!』로 이 글을 맺어 주었다.

◇임성운君

주변의 사건을 作品으로 승화

금년 뜻있는 본교 국문과 2학년 同人誌 「原點」에 대한 애착도 대단하다.

○…좋아하는 성격 「現實과 理想의 다이나믹한 성격」의 소유자. 주제로 한 작품을 쓰고 있는 한것은물론이었는 편이지만 『피곤한 줄모르고 자신만만!』로 이 글을 맺어 주었다.

나는 특파원생활에 열중을 느끼기도 했었지만 그보다 학구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그 즈막에 다시 되살아나서 기자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역시 본사로부터 올 하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大學街動靜

「現實참여」가장큰 슈잇어

共同연구등 풍성한 10年

研究所 7개나서고

60年代의 大學은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 서고자하는 「主體의 현실화와 지성적인 행동을 추구할때 수반되는 소외감과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실현할 기회를 주었다。

60年代의 大學街는 모에서 밝아왔다。

4·19의거를 기르로하여 3事件, 굴욕의 3선개헌안을 해워싼 大學街의 소용돌이 등

4·19는 60년대 학생운동의 조종탄이었다。過慾한 政權집착이 사태를 그르치게한 첫요인이 되었지만 당시 「본노의 學潮」라고까지 표현된 학생들의 참여의식은 폭발적으로 고조된것이었다。그것은 무엇보다도 「50年代까지 숫적으로만 팽창하고 사회적 지위, 사회로부터의 인식여부가 상대적으로 높지 못했던 학생을 자신의 문제로 발견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본노의 學潮」라고까지 표현된 학생들의 참여의식은 폭발적으로 고조된것이었다。그것은 무엇보다도 「50年代까지 숫적으로만 팽창하고 사회적 지위, 사회로부터의 인식여부가 상대적으로 높지 못했던 학생을 자신의 문제로 발견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본노의 學潮」라고까지 표현된 학생들의 참여의식은 폭발적으로 고조된것이었다。그것은 무엇보다도 「50年代까지 숫적으로만 팽창하고 사회적 지위, 사회로부터의 인식여부가 상대적으로 높지 못했던 학생을 자신의 문제로 발견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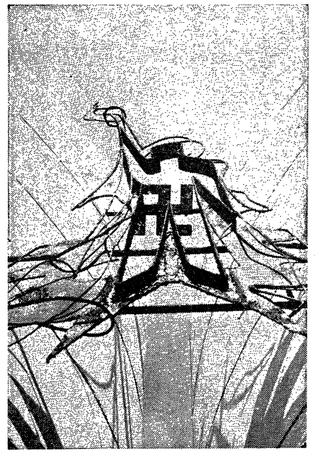
그러한 학생의 욕적인 참여의식은 4·19로 발전되었다。

4·19는 60년대 학생데모의 조종탄이었다。過慾한 政權집착이 사태를 그르치게한 첫요인이 되었다。그러나 그것은 『본노의 學潮』

제1회 캠퍼스 撮影大會

特○○選

〈佛心〉 李春滿·作



審査所感

◇심인식교수

◇양영훈門門

穀價政策의 方向

「農民不在政策」시정

價格조절로 增産, 消費代替를

食糧 自給化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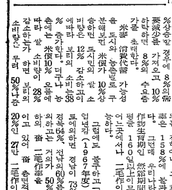
李 三 秀 (農大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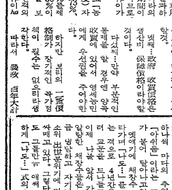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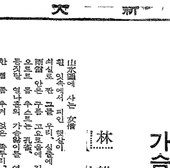
□ 본사 學術賞 人文社會科學부문 本賞 수상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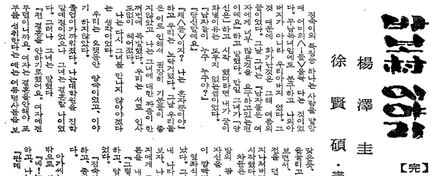
孔雀, 가슴 앓아

林 雄 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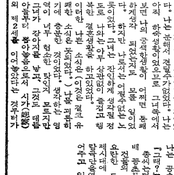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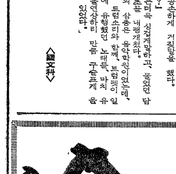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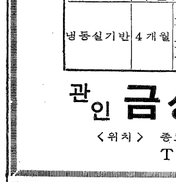


〈創作〉 楊澤圭 徐賢碩·畵

【完】







冷凍? 空調

교육과정

반별	수강기간	수강시간	반별	수강기간	수강시간
냉동실기반	4개월	오전 10~12시	냉동특강반	1개월	오후 2~6시
		오후 2~4시	난방실기반	3 〃	오후 2~4시
		오후 6.30~8.30	냉·난방 설비설계반	2 〃	오전 12.30~2.30

〈개강 12月5日~10日〉

관인 금성냉동기술학원

〈위치〉 종로구예지동193—1 청계천 4가 (천일극장정문앞)

TEL (73) 4458 (74) 9265

留學試驗對象, 開講12月29日(月)

冬放期學 留學講義

前恩石學院 留學國史擔當代表講師 張哲煥

◎留學英語<英作練解> 10.20, 5.00, 7.40 朴鍾世

◎留學國史<180문제집중정리> 12.00, 3.30, 6.20 張哲煥

◎時事論文<國內國際情勢> (土·日)10.00, 2.00 朴教守

※資格 人文系…4年卒業 또는 卒業豫定者

自 然…2年修了또는 2年以上 專攻한者

官認 三星學院 海外留學部

광화문수송국민학교앞 (75)3351

JES의 日本語

級班…原書解讀班·留學班·就職班

時間…AM7.30~12.30

PM3.00~9.00

各班 2個月 完成

開講 a. 12月15日 (수시접수)

특강…일요일무료특강시간10시부터12시

場所…鍾路1街 뻐스停留場앞 법문사옆

JES語學研究所 ⑦5822

<國內第一의 Typing學院案內>

美式 P,U,R式施設과 現代式敎育기구設備

취직코—스<사무,비서과정>취직보장

교양과정<한글,英文> 1個月完成

접수기간

1. 매월 1일, 10일, 15일 계강

2. 계획외도, 실무교육, 최고시설

3. 입사기회별 접수처에서 접수함

외무부장관상받음, 서울시교육감상받음

官認 내외타자학원

서울종로3가네거리6층빌딩(단성사맞은편)

⑦5046 ⑦4089

會計士 本試驗班 募集

大韓經理學院 〈創立23年〉

1. 簿記原理
2. 財務諸表論
3. 原價計算
4. 商業簿記
5. 工業簿記
6. 會計學
7. 原價計算
8. 商業簿記
9. 財務諸表論
10. 會計士 實務
11. 會計士 實務
12. 高等數學
13. 英語
14. 日本語
15. 基本簿記
16. 本班講師陣
17. 預金·貸出·爲替
18. 商業簿記
19. 工業簿記
20. 指導
21. 檢定試驗
22. 原價計算
23. 經營學原論
24. 會計學原論
25. 財務諸表論
26. 會計士 實務
27. 會計士 實務
28. 英語
29. 日本語

※講師名單 其他 十二月 中旬 開講 二日 間 確定 要望

서울종로3가 단성사앞 ⑦3289